

길림시 조선족 문예애호가들 문예강습으로 예술소양 제고



최근,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조직한 2024년도 제1기 공익문예강습이 원만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공익문예강습은 길림지역 조선족 군중들

을 상대로 조선족무용, 조선족민요, 조선족장구, 타악 등 9개 과정을 포함하여 12개 반을 개설하였는데 길림시와 서란, 반석, 교하, 화전, 영길 지역의 조선족로인협회, 조선족부녀

협회 등 조선족 민간단체의 문예공간들을 비롯, 총 379명의 조선족 문예애호가들이 참가해 6주 동안 164시간의 학습을 원만히 마쳤다.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리영일 부관장에 따르면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공익문예강습은 민족문화의 매력을 충분히 전시하고 강습을 통해 더욱 많은 군중들의 예술 수준을 제고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예술형식을 한층 더 이해하고 즐기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더욱 많은 문예애호가들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은 제1기 공익문예강습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해 큰 효과를 보았다.

생중계 루게 시청자수는 17만 6,000명,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위챗 공식계정 추가 팬수는 3,792명,

루게 찬사가 58만 2,700회에 달하며 전국 문예애호가들의 열렬한 호평을 받았다.

이에 앞서 올 년초에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는 새 중국 창건 75주년을 경축하고 길림시 공공문화서비스체계 시범구를 구축하여 소수민족의 전통문화를 고양하고 전승하며 대중들의 여가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조선족군중예술관 다기능홀에서 조선족 머리장식 제작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은 길림지역의 유일한 국가1급 문화관으로서 전통의 기초하에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며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공익문화혜민을 적극 추진하며 매년 각종 공익훈련을 개최하여 조선족 군중을 망라한 광범한 대중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얻고 있으며 대중들의 예술소양을 제고시키고 대중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 데 힘 다하고 있다.

/ 차영국기자

교하 유방곡 꽃 관광 명소로 부상



5월 9일, 교하시 하남가 삼가촌의 유방곡(幽芳谷) 풍경구에 20여만평방메터에 달하는 지앵화(芝櫻花)가 활짝 피어 온 산골짜기가 아름다운 꽃단장을 했다.

면적이 500헥타르인 유방곡풍경구는 7년간의 건설을 거쳐 현재 핵심구역에 꽃바다 및 시내물, 폭포, 삼림기석 등 자연경관을 형성하여 길림시 또 하나의 봄여름 관광명소로 되었다.

지앵화는 원산지가 북아메리카이

고 중국에서는 근년에 재배하고 있으며 꽃이 만개할 때 모양이 벚꽃과 비슷하다.

주로 경사지에 심으며 줄기는 지형의 기복에 따라 포복 성장하고 확장되며 진분홍, 분홍, 흰색 등이 있다. 지앵화는 돌담이나 벽면의 화단에 심어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도 한다.

가뭇과 추위에 견디고 개화기가 길며 향기로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 송화강넷

길림시 ‘꽃노을락원’동아리 초여름 야유회 즐겁게



5월 12일,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꽃노을락원’동아리 80여명 회원들은 윤재군 회장의 인솔하에 길림시 근교에 자리잡은 ‘북흥성장원’(福興盛莊園)에서 초여름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여성 회원들은 화려한 한복에 예쁘게 단장하고 남성 회원들 또한 양복에 야구모자까지 쓰고 나서니 젊은이들 못지 않게 생기가 있어 보였다. 그 누가 이들을 칠팔심세 된 로인이라고 하랴!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있었고 활기차고 씩씩한 모습이었다.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얼마 가지 않아 봄빛이 짙은 산속에 자리잡은 ‘북흥성장원’ 정문에 들어서니 나지막한 언덕에 즐비하게 세워진 고풍스런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문에서 가까운 입구에는 런툼이 있었는데 큰 물고기들이 유유히 노닐고 있었다. 일행은 런툼을 에둘러 오른쪽으로 올라갔다. 여기는 러행객들을 위해 길 양쪽과 건물들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해놓아 감탄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언덕 제일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는 큰 건물 대청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역시 실내도 깔끔하고 아담하면서 또 아름답게 장식되어 로인들의 기분을 들뜨게 했다. 여기는 2,3백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식탁들이 랑옆으로 줄지어 있었고 맨 끝에는 자그마한 무대에 음향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드디어 협회 회원들이 준비한 합창, 사랑송, 독창, 무용 등 문예종목과 게임이 시작되었다. 첫 종목으로 대합창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과 요즘 유행되고 있는 <놀다 감시다>가 무대에 등장해 박수갈채가 터졌다.

85세 고령인 리광식회원의 자작

시 사랑송 <어머니>는 회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이어 길림시조선족단오민속제 무대에서 10대 가수로 뽑힌 적 있는 최선자가 전업가수 뻘칠 만큼 너무나도 노래를 잘 불러 런속 앵콜 요청을 받았다.

권용학과 오정임 등이 즐거운 음악에 맞춰서 추는 한족무용은 너무나 흥이 나고 재미있어 심지어 구경하던 분들마저 춤판에 끼어들기도 했다.

문예공연이 끝나자 곧바로 ‘베개 전달’ 게임이 시작되었다. 베개를 보는 순간 저절로 어떻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사실 쉽지 않았다. 목과 턱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 넘기는 과정에 베개에 손을 대면 안된다. 허나 그게 너무 어려웠고 넘겨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습강스러워 모두들 배를 끌어안고 웃는 바람에 장내는 온통 웃음바다가 되어버렸다.

점심식사시간이 되자 잠깐 사이에 풍성한 점심상이 차려졌다. 잠시 조용하다 싶었는데 술 몇잔씩 오가더니 벌써 여기저기서 저가락으로 밥상 두드리는 소리, 노래소리에 장내가 들썩인다. 이제 바로 저가락 장단에 맞춰 춤추고 노래가락도 잘 뽐는 우리 민족 고유의 특성이라라.

점점 흥에 겨운 회원들은 벌써 식탁머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저 장다면서 축배를 들고 서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오후에는 주로 사교무와 조선족춤이 벌어졌다.

‘꽃노을락원’의 전체 회원들은 이렇게 한바탕 재미있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아쉬운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 백영실, 문창호특약기자

길림시 고신기술개발구 학교와 기업 연합초빙회 개최

4월말, 두대의 대형 버스가 서서히 길림만풍오위(万丰奥威) 유한회사에 들어섰다. 50여명의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회사 전시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생산운영, 과학기술혁신 등 상황을 료해했으며 초빙 직위, 급여와 복지, 승진 경로를 문의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했다.

이는 길림시 고신기술개발구에서 펼쳐진, 2024 ‘직업이 미래를 가져온다’ 학교와 기업 연합초빙박람회의 중요한 일환이다.

길림시 고신기술개발구는 자동차 및 부품, 전자와 정보, 의약 및 건강, 장비제조 등 주도산업을 중심으로 제1회 학교 기업 연합초빙활동을 거행

했다.

초빙박람회 현장은 중국길림디지털 경제산업단지에 설치되었으며 길림화미전자, 길림만풍오위, 길림항성전자 등 중점 기업과 과학기술 창업형 기업, 미디어기업, 상업무역 등 유형의 총 40개 기업이 참가해 1,060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대학교에서 온 560명의 졸업 예정자와 사회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았다.

숙박 무료, 식사 세끼 무료, 셔틀버스 무료, 5가지 보험과 년금, 년차휴가와 명절 유급 혜택 등 길림화미전자는 눈에 잘 띄이는 곳에 ‘대학생 봉급 복지’를 붙여 많은 구직자들이 둘러보

며 자문하였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 기술, 관리 직을 제공합니다.” 화미전자 인사 관계자가 말했다.

북화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리약성은 회계일군을 모집하는 모든 기업을 기록하고 자세하게 대조했다.

“경험을 쌓으라고 취업 인턴을 제공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산서성에 있지만 4년 동안 길림시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길림을 사랑하게 됐습니다.”라고 리약성은 말했다.

기업의 초빙 상황을 충분히 료해한 후 길림시 고신기술개발구는 학생들

을 조직하여 기업을 참관시켰다.

한 취업준비생은 기업을 견학하면 기업의 근무 분위기를 더욱 실감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길림시 고신기술개발구인력자원사회보장국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초빙활동에서 도합 251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다.

길림시 고신기술개발구는 구직 경로를 한층 더 넓혀 더 많은 인재를 기업에 영입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량질의 완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촉구할 계획이다.

/ 강성일보

서란 75 만무 논에 모내기 시작

5월초, 서란시 학명가정농장의 넓은 논에서는 10여대의 이앙기가 오가면서 모심기에 한창이다.

올해 서란시의 벼 재배면적은 총 75만무인데 서란지역 벼농사에 적합한 벼 품종 17종을 선택하였다.

현재 서란시의 모내기 작업은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6월 중순에 모내기를 끝낼 예정이라고 한다.

사건은 학명농장의 벼모 하우스 일각.

/ 강성일보

